



광주시립예술단이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송년 음악회를 선보인다. 사진은 광주시립합창단(왼쪽)과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광주 전업 예술인 연소득 1148만원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실태조사 6일, 예술인 복지정책 포럼

광주에서 활동하는 전업 예술인의 연 평균 소득은 114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예술인 절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과 발표 기회가 감소해 비대면 방식이나 개인활동 중심으로 활동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문화재단이 실시한 2021년도 광주예술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문화재단은 지난 9월부터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3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매개로 진행됐다. 총 2111명이 광주 예술인으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총 1215명(장애예술인 112명 포함)의 유효표본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전업예술인은 전체 61.4%로 집계됐으며 이 중 66%는 비정규직 또는 무직 상태였다. 경력 단절 경험은 절반 이상인 52.3%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주된 이유는 '생계'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 예술정책(지원사업) 부족과 지역 예술 소비력이 낮아 판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절반 이상인 각각 54.2%, 51.2%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예술환경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100점 만점에 20~30점대로 낮은 평가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개선과 영역별 세밀화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광주 예술계 전반적인 공정성 평가 점수는 42.5점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지역-학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항목은 26.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예술인의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35.6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문화재단은 6일 광주시의회 연결회의실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포럼 '광주 예술인 미래를 담다'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조사 대행기관인 ㈜폴인사이트는 예술인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광주형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6대 과제 18대 정책'을 발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립예술단과 한 해 마무리 “따뜻한 추억 남기세요”

함창으로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 스타 소리꾼의 신명나는 국악 무대, 발레로 만나는 크리스마스 동화...

음악과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광주시립예술단체가 판소리, 민요, 합창, 발레 등 다채로운 송년 무대를 준비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송년 국악한마당'을 통해 2021년의 대미를 장식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창극단 대표 레퍼토리를 엄선한 공연으로 판소리와 민요, 한국무용, 타악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고정되지 않는 선율이 특징인 '허튼 시나위'로 시작하며 이어 경고(작은 장고)를 한 손에 들고 추는 '경고무'를 선보인다. 또 판소리 '춘향가' 중 '갈까부다, 신명맞이', 단막창 '십장가'와 남도민요 '육자배기', '남원산성', '판곡', '버꾸진도복춤'도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은 따뜻하고 유쾌한 겨울 음악회를 마련했다. '올 겨울엔 뭐니뭐니해도' 공연이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은 '겨울에 만나는', '술술 뭉뭉기 시작한 산타', '따스하고, 신비하고', 'Handbell의 향연', '캐럴을 핸드벨과 함께' 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겨울이면 떠오르는 대표적 가곡과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첫 번째 '겨울에 만나는' 무대에서는 겨울을 대표하는 가곡인 김효근의 '눈'과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작곡가 랜달 톰슨이 곡을 붙인 '별처럼 영롱하게'를 들려주며 '술술 뭉뭉기 시작한 산타' 시간에는 '산타클로스의 신나는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만날 수 있다. '앗싸! 뜨거운 겨울 나라' 시간에는 멕시코 '라 밤바', 아르헨티나 '리베르 탕고' 등 민속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며 여성합창단원들은 '따스하고, 신비하고'를 주제로 '한 아가', '박사들의 경배' 등을 들려준다.

이밖에 청아한 울림이 아름다운 '핸드벨의 향연'을 대전핸드벨과이어의 연주로 선보이며, 광주시립교향악단 김용석 단원(티파니)과의 협연 무대도 선사한다. 지휘는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맡고, 5인조 재즈밴드 리더인 백토리가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16일 오후 7시 30분)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올해는 스타 소리꾼 남상일과 김산옥을 초대해 흥겨운 국악한마당을 선사한다. 공연은 시인 서정주의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작곡한 관현악곡 '질마재의 노래'로 시작한다. 가야금 협주곡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와 사랑과 이별의 대비되는 감정을 담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과 이별' 대목도 만날 수 있다. 또 '김광복류 피리산조 협주곡'의 초연 무대와 타악협주곡 '북아라뽕'도 선보인다. 남상일과 김산옥은 '한네의 승천' 중 '사랑가', '만명의 노래', '한네의 이별' 등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한상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며, 사회는 아나운서 박광신이 맡는다.



소리꾼 김산옥

창극단, 10일 판소리·민요·한국무용·타악 등 한자리에 합창단, 14일 '올 겨울엔 뭐니뭐니해도' 유쾌한 음악회 국악관현악단, 16일 소리꾼 남상일·김산옥 국악한마당

무대도 선사한다. 지휘는 김인재 상임지휘자가 맡고, 5인조 재즈밴드 리더인 백토리가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16일 오후 7시 30분)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올해는 스타 소리꾼 남상일과 김산옥을 초대해 흥겨운 국악한마당을 선사한다. 공연은 시인 서정주의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작곡한 관현악곡 '질마재의 노래'로 시작한다. 가야금 협주곡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와 사랑과 이별의 대비되는 감정을 담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과 이별' 대목도 만날 수 있다. 또 '김광복류 피리산조 협주곡'의 초연 무대와 타악협주곡 '북아라뽕'도 선보인다. 남상일과 김산옥은 '한네의 승천' 중 '사랑가', '만명의 노래', '한네의 이별' 등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한상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며, 사회는 아나운서 박광신이 맡는다.

광주시립발레단은 대표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 (23-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한다.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 작가 호프만의 동화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올해는 음악김용결(한예종 교수)의 새로운 해석과 전막 창작 안무, 원자승(홍익대 교수)의 연출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2021 ACC 송년음악회'는 24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흥석원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자로 올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선보인다. 발레단과 교향악단 공연은 전석 매진이다.

한편 광주시립오페라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앞서 지난 3일과 4일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와 '슈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with 발레'를 선보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희망 Dream-폴프'

전시장을 가득 채운 담쟁이 그림은 사계절의 풍광과 어울려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즐기만 남아있는 을씨년스런 모습에서는 '생명'을 감지하기 어렵지만, 담쟁이는 그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우며 푸른 빛을 만들어낸다. 가을로 들어 서면 붉은 빛으로 모습을 바꾸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서양화가 이금주 작가는 오랫동안 '담쟁이'를 소재로 작업해 왔다. 메마른 담장을 감싸안는 담쟁이 녀름의 모습에서 서로를 덮는 따스함을 발견하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느꼈다.

이금주 작가 전시회가 오는 2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희망 Dream'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

주문예회관이 지역 예술단체와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전시공모에 선정돼 열리는 기획전이다.

전시작들은 매끈한 캔버스 화폭에 그린 회화 작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광목천과 레이스천을 잘라 붙이거나 다채로운 주름을 만들어 입체감과 자연스러움을 부여하고 그 위에 세심한 붓질과 두터운 물감을 덧칠해 마티에르를 강조했다. 또 겨울 담벼락에 눈이 쌓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반짝이는 물감도 활용했다.

작가는 작업 초창기, 아이가 썼던 기저귀와 기저귀에 활활물을 입힌 후 담쟁이 녀름을 그려왔다. 이번 전시작들은 하나의 캔버스에 그린 작품과 함께 작은 판넬을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80여 개까지 이어붙여 하나의 '담벼락'처럼 구성, 독특한 조형성을 만들어낸 점이 특징이다. 존재하지

않을 듯한 곳에서 기어오르는 모습을 드러내는 담쟁이의 생명력을 묘사하고, 담쟁이가 자유롭게 뻗어나가듯, 우리 삶도 어딘가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확장성'의 의미를 담아 구상했다.

가로폭이 5m에 이르는 대작 '희망 Dream-폴프'는 84개의 판넬을 이어붙인 작품이다. 천을 구겨 표현해낸 줄기 위로 푸르고 붉은 담쟁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에서는 우리 모두는 서로 이어지고, 어우러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며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희망도 함께 담았다.

올해 그린 신작들이 주로 나온 이번 전시에는 '허그(Hug)'를 주제로 작업했던 예전 그림들도 함께 걸려 작품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담쟁이와 담벼락이 서로 의지하며 힘을 얻어가는 모

습이 꼭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 제작한 작품들이다. 또 작품 속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의 모습 등 마치 숨은 그림찾기를 하듯, 담쟁이 녀름이 만들어놓은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하다.

"담벼락에 붙어 있는 담쟁이는 죽어있는 듯하지만 또 계절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돋는 걸 보면 우리 인생과 똑같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가, 힘들어도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목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이 작가는 지금까지 1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청동회 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겨울 이겨낸 '담쟁이' 희망을 전하다

이금주 전, 2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문화누리카드 잔액 꼭 사용" 전남문화재단 12일까지 이벤트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문화누리카드 잔액 사용 이벤트 '뽕 원 뽕 뽕 먹기'를 1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인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 이미지를 네이버 폼 설문지 또는 이메일(voucher@jnfc.or.kr)로 전송하거나 재단에 방문해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제과제빵 상품권(2만원)을 제공한다.

재단은 아울러 도서산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노년층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장터'를 개장한다. 오는 8일 해남 송지면사무소, 9일 고흥읍사무소, 10일 신안 암태국민체육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의 어디서나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됐다. 올해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문의 061-280-584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